

Trip of HR

2024 해외학술탐방

미국 글로벌 기업의 HR 전략 및 효과성 :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교육학과 김미래 교육학과 박재은 가정교육과 이효진 가정교육과 정아람

예산 사용 내역



항공권/숙소/보험/비자/eSIM	
내역	금액
인천 - 샌프란시스코(LA) 왕복 항공	₩1,660,300
샌프란시스코 - 라스베가스 항공	₩147,658
라스베가스 - LA 항공	₩143,936
샌프란시스코 숙소	₩482,344
라스베가스 숙소	₩21,146
LA 숙소	₩211,931
여행자 보험	₩19,600
ESTA 비자 발급	₩30,336
eSIM	₩27,900
총계	₩2,745,151

식비	
내역	금액
마트(Trader Joe's)	₩19,652
마트(Walgreens)	₩29,622
마트(Ralphs)	₩37,534
햄버거(6회)	₩113,579
샌드위치(3회)	₩23,838
레스토랑(5회)	₩171,575
카페(3회)	₩18,747
총계	₩414,546

교통비/투어	
내역	금액
MUNI 티켓	₩19,073
렌트카	₩167,443
우버	₩288,852
주차비	₩17,543
그랜드 캐니언 투어	₩338,751
총계	₩831,662

*1인기준

총 경비 ₩3,991,359

일정 계획

- 1 7/16 (화) | ICN → SFO
- 2 7/17 (수) | 실리콘밸리 투어/Google 현직자 인터뷰/
Stanford 대학교 방문 및 설문조사 실시
- 3 7/18 (목) | Sausalito 및 금문교 방문
- 4 7/19 (금) | Apple 현직자 인터뷰
- 5 7/20 (토) | Santa Cruz 방문
- 6 7/21 (일) | 샌프란시스코 투어
- 7 7/22 (월) | SFO → LAS
- 8 7/23 (화) | Grand Canyon 투어
- 9 7/24 (수) | Grand Canyon 투어
- 10 7/25 (목) | LAS → LAX
- 11 7/26 (금) | The Broad 미술관 및 Griffith 천문대 방문
- 12 7/27 (토) | LAX → ICN

Trip of HR

탐방 기관



Google



In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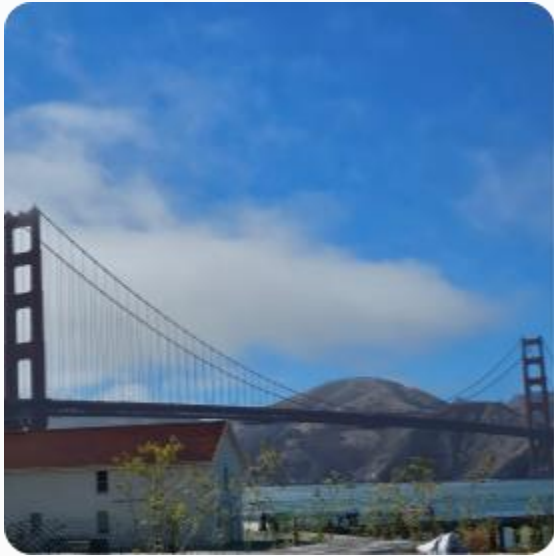
Apple park visitor center



Stanford University

Trip of HR

탐방 기관



Golden Gate Bridge



Grand Canyon



The Broad



Griffith Observatory

Trip of H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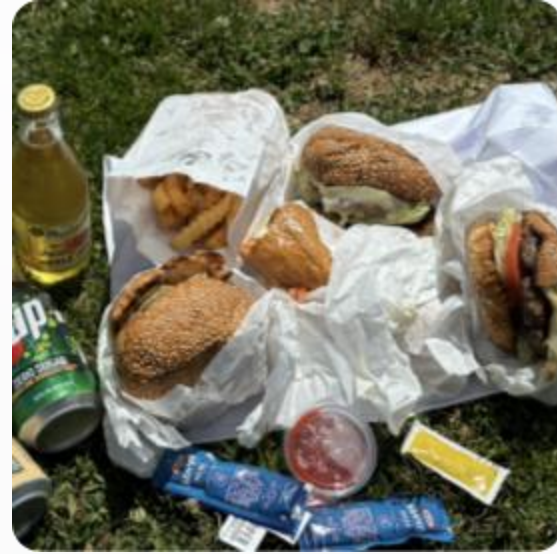
방문 맛집



Superduper Burger



In-N-Out Burger



Sausalito Hamburger



Lappert's Ice cream

Trip of HK

방문 맛집



Pier Market



Lori's Diner



Cheese cake factory



Republique

현직자 인터뷰 - Google

[Googleplex]

1600 Amphitheatre Pkwy, Mountain View, CA 94043 USA



- 1 Q.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구글 안드로이드 픽셀 하드웨어 개발자로 기기 간 연결성, 안드로이드 픽셀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 Q. 미국 기업의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A. 미국 기업의 대부분은 각 부서별 매니저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각 팀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공하며 멘탈 관리, 기술적 도움 제공, 협업 중재 등 각 팀원과 가까운 위치에서 도움을 준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 3 Q. 구글에서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나요?
A. 부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입사 후 3주 정도 내부 개발 툴 이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 후로는 기업 내부 교육 플랫폼에 자료들이 있어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4 Q. 구글에서 제공하는 비전/인재상이 실제로 교육이나 업무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나요?
A. 구글의 인재상은 선한 사람 그리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맞는 실제 교육이나 업무를 제공하기엔 힘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한국 기업과의 차이점

승진 방식이 특별합니다.

한국과 달리 인사팀이 아닌, 본인이 직접 매니저에게 승진을 요청하고 이후 동료평가와 성과, 매니저 평가로 결정됩니다.

현직자 인터뷰 - Apple

[Apple Park Visitor Center]

10600 N Tantau Ave, Cupertino, CA 95014, USA



- Q.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한국 LG전자와 독일에서 일을 하다 지금은 애플 본사에서 애플 맥북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Q. 미국 애플 본사에서 조직관리 및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A. 매니저가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매니저가 부서를 조직하며 승진의 경우 성과 외에도 5~6명 정도의 동료 평가, 매니저 평가가 중요합니다. 인사팀이 있긴 하지만 병가나 휴직 등 큰일이 있을 때만 관여를 합니다.
- Q. 애플에서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나요?
A. 애플 본사는 신입을 잘 뽑지 않으며 전공 박사가 아닌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6개월 내에 업무를 습득하기에 직무에 대한 교육은 거의 없으며 예의나 성관념 등 필수 이수 교육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Q.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을 비교했을 때 사내 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성을 띠다고 생각하시나요?
A. 이는 미국과 한국 회사의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Q. 애플 본사는 뽑는 대상이 학부 졸업생이 아니기에 한국과 비교하여 직무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또한 한국은 공정을 중요시하지만 미국은 설계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산업 구조의 차이가 달라 기업의 목적에 맞는 사내 교육의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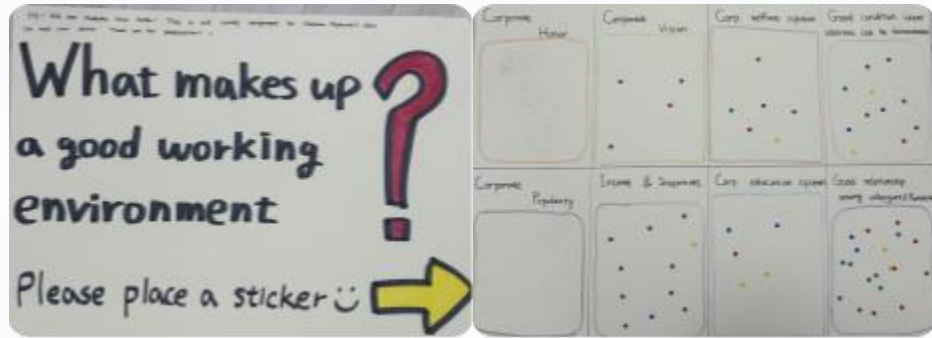
=>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한국 기업과의 차이점

인사 담당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인사팀이 따로 존재하기에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미국은 팀별 다섯 명 중 한 명은 매니저가 되기에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450 Serra Mall, Stanford, CA 94305,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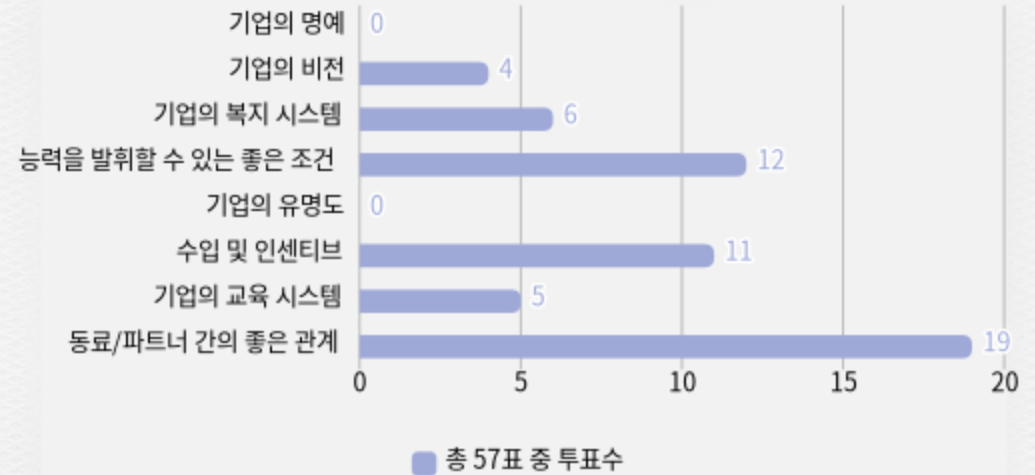


스탠포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무엇이 좋은 업무 환경을 만든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동료와의 관계가 업무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기업에서 직원을 관리하고, 직원 간의 관계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소수의 스탠포드 대학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정된 결과일 수 있으나 장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점에 있어 미국 기업의 추후 발전 방향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조사였습니다. 또한 해당 결과는 미국 기업에서 '매니저'의 존재에 대한 이유로도 연관될 수 있다고 보아 한국 기업에서도 매니저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조사 결과 >



- | | | | |
|---|-------------------------|---|----------------|
| 1 | 동료/파트너 간의 좋은 관계 (19) | 4 | 기업의 복지 시스템 (6) |
| 2 |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조건 (12) | 5 | 기업의 교육 시스템 (5) |
| 3 | 수입 및 인센티브 (11) | 6 | 기업의 비전 (4) |

Trip of HR

탐방 후 느낀점

박재은

이번 학술 탐방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 관점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나라에서 쌓은 많은 경험들은 저의 직무 선택과 꿈,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진로 고려의 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HR 분야에 있어서, 해외 대기업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회사 생활을 경험해 본 미국 기업(구글, 애플 등)의 현직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과 미국의 HR 분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차이점과 배울 점을 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 구조가 전반적인 업무 형태에 어떻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 내 매니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며, 업무 효율성뿐만 아니라 관계 관리 및 평가와 같은 다양한 측면의 우수한 인재가 활약하는 방식도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필수 교육이 많아 임직원에게 대부분의 교육 내용을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우리나라 기업과 달리, 미국 기업들은 직원이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는 방식의 이러닝 교육을 많이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현장에서의 HRD 효율성과 트렌드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추후 HR 분야에서 제가 서 있을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 탐방은 영어라는 세계 공용어를 더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공부할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직업 선택뿐만 아니라 여행, 언어, 관계에서도 더 열린 마음으로 도전하고 사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호진

이번 탐방을 통해 많은 것을 얻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직자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새로운 점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에서 하는 직원 교육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며, 초반에 기본적인 교육만 듣고 나머지는 본인이 원할 때 들도록 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숙박하면서 며칠 동안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구글이나 애플은 개인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니저가 존재하여 팀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직원은 요구사항이 생기면 바로 매니저와 소통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여러 회사 문화가 신기했습니다.

이번 학술 탐방에서 좋은 인연이 되어 현직자분들과 인터뷰가 끝나고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현직자분들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시는 다른 한국인 분들도 만나서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탐방을 가기 전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약 2주라는 시간 동안 미국에서 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돌아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은 제가 살고 있는 것보다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도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탐방에서 여러 일들을 성취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못 할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 느꼈던 것들을 잘 간직하여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Trip of HR

탐방을 통한 나의 발전 계획

김이래

샌프란시스코 실리콘 벨리에서 진행된 해외학술탐방을 통해서 글로벌 관점에서 기업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고, 향후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Google과 Apple의 현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기업 문화, 그리고 직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HR 전략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탠포드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기업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동기 부여를 받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내에서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직원들이 스스로 동기를 부여받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시스템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느낀 교육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업무와 연관된 최신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에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조성되어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업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협업의 문화를 통한 팀 내의 개방적 소통과 다양한 관점의 존중은 기업이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해외학술탐방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HR 전략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습과 현장 경험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HR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정아람

구글, 애플 현직자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미국 기업의 인사 관리, 교육 시스템 등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중 미국에서는 인사담당자의 역할이 각 팀의 매니저에게 분담되어 있으며, 매니저와 직원 간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보다 개인화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 스탠포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는 미국 글로벌 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시료가 되었습니다. 장래 미국 기업의 일원으로 나아갈 학생들이 '동료와의 관계를 가장 중시한다'는 결과를 통해 이를 중재하는 역할인 매니저의 존재 이유에 대해 더욱 공감할 수 있었고, 앞으로 미국 글로벌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시스템에서 'relationship'이 중점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게 된 저는 무한한 탐구심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진행했던 현직자님과의 인터뷰 및 설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한국에서 매니저 시스템을 도입했을 경우 그 결과를 예측해 보는 후속 탐구를 진행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학술 탐방은 제 꿈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해외 인턴십과 취업을 목표로 삼고, 남은 대학 생활 동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그 꿈에 다가가려 합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삶을 미래의 목표로 삼아 어학 공부와 구체적인 전공 설정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할 계획입니다. 약 2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국의 문화와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연과 그들로부터 얻은 동기부여에 깊이 감사하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꿈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Trip of HR
감사합니다

교육학과 김미래 교육학과 박재은 가정교육과 이효진 가정교육과 정아람